



MB정부보다 더 강화된 풀뿌리 관광육성정책 파고

2014.09.02 | 정란수_새사연 이사 | naked38@naver.com

지난 8월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해당하는 유망 서비스산업 중 하나인 관광콘텐츠 분야의 핵심 과제는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와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과제로 나누어진다. 이 중 일부 정책은 관광분야 투자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정책이라고 판단되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적 결과물이 지난 MB정부보다 더 강화된 풀뿌리 관광육성을 저해할 요소가 있어, 이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투자활성화대책 중 관광분야 핵심 과제의 내용

지난 8월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중심의 합동 관계부처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가 높은 유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투자활성화대책을 제시한 것이 그 내용인데, 으로 유망 서비스산업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SW 등 7개 분야를 선정하였다. 이 중 관광과 콘텐츠 분야는 해외관광객을 대상¹⁾으로 하여 2013년 1,218만 명의 방한 수치를 2017년 2,000만 명으로 상승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광콘텐츠분야의 핵심 과제는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와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과제로 나누어진다.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로는 1)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2)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한 국제 테마파크 유치, 3)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4) 무역센터 일대 한류중심지화 추진이며,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과제로는 1) 중국인 관광객 친화적 관광환경 조성, 2)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수립, 3) 산지관광 활성화, 4) 외국인에 대한 휴양콘도미니엄 1인 분양 허용 확대, 5) 관광호텔 설립 촉진, 6) 관광단지 조성 활성화, 7) 자연휴양림 이용편의 제고, 8) 스포츠·컨벤션 시설 등 유희시설 활용 촉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관계부처합동(2014). 투자활성화대책 -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중심. 3p에 목표를 해외관광객으로 명시하였으나, 일반적으로 해외관광객은 내국인이 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Outbound)을 의미한다. 이 문건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목표치는 해외관광객이 아닌 외래관광객으로서 외국인이 국내에 방문하는 관광객(Inbound)을 잘못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1. 투자활성화대책 中 관광콘텐츠분야 핵심과제

진 과 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1. 프로젝트 과제		
1-1.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1-1-1. 복합리조트 마스터플랜 마련	문체부	14.12월
1-1-2.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 추가선정을 위한 공모절차 진행	문체부	15.上
1-2.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한 국제테마파크 유치		
1-2-1. 산업입지법 개정	국토부	14.下
1-3.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1-3-1. 양양군 케이블카 설치	양양군, 환경부	16년
1-3-2. 전국지역 케이블카 실태조사 실시	문체부 등	14.12월
1-4. 무역센터 일대 한류중심지화 추진		
1-4-1. 무역센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	서울시	14.11월
1-4-2. 관광특구내 공개공지에서 공연·음식제공 허용	문체부	15.6월
1-4-3. 전시장내 간단한 조리음식 판매 허용	식약처	15.6월
1-4-4. 미디어파사드 영상 연출시간 연장	서울시	14.12월
2.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 과제		
2-1. 중국관광객 친화적 관광환경 조성		
2-1-1. 중국인 관광객 전용 케이블 TV 채널 신설	문체부	15.12월
2-1-2. 전자비자 제도 실행	법무부	15.1/4
2-1-3. 대중교통 등에 중국어 표기 확대	문체부	계속
2-1-4. 우수음식점 가이드북 제공	관광공사	14.12월
2-1-5. 중국관광객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	문체부	14.下
2-2. 한강 주변지역 관광자원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2-2-1. 한강 및 한강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마스터 플랜 수립	서울시, 국토부, 문체부	15.上
2-2-2. 하천 수목식재 간격기준 개정	국토부	15.上
2-3. 산지관광 활성화		
2-3-1. 신약관광 특구제도 도입	문체부, 환경부, 산림청	15.1/4
2-3-2. 자연휴양림 등에 트라이하우스 등 도입	산림청, 문체부	14.下
2-3-3. 체험휴양형 공원시설 확대	환경부	~17년
2-4. 외국인에 대한 휴양콘도미니엄 1인 분양 허용 확대		
2-4-1. 제주 이외 지역 외국인 1인분양 허용	문체부	14.10월
2-4-2. 영종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확대	법무부	14.12월
2-5. 관광호텔 설립 촉진		
2-5-1. 관광진흥법 개정	문체부	14.下
2-5-2. 용적률 특례 등 연장	문체부	15.12월
2-5-3. 조경면적 완화	문체부	14.12월
2-5-4. 호텔설립 가용부지 확보 방안 마련	문체부, 국토부	15.上
2-6. 관광단지 조성 활성화		
2-6-1. 조성토지를 조성원가로 처분하도록 허용	문체부	14.下
2-6-2. 관광사업계획 승인시 협의절차 개선	문체부	14.下
2-7. 자연휴양림 이용편의 제고		
2-7-1. 통합 예약시스템 구축	산림청	16년
2-7-2. 예약방식 개선	산림청	15.上
2-7-3. 자연휴양림 확대	산림청	~17년
2-8. 스포츠컨벤션 시설 등 유휴시설 활용 촉진		
2-8-1. 유휴시설 수익 창출 방안 마련	문체부	15.上

출처 : 관계부처합동(2014).



이 중 무역센터 일대의 한류중심지화나 중국관광객 친환경 관광환경 조성 등 외래 관광객의 관광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 조정,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던 관광단지 조성 활성화 방안 및 자연휴양림 이용편의 제고, 스포츠컨벤션시설과 같은 유희시설 활용 촉진 방안 등 일부 정책은 관광분야 투자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적 결과물이 지난 MB정부보다 더 강화된 풀뿌리 관광육성을 저해할 요소가 있어, 이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복합 리조트 설립 지원 : 전국토를 도박판으로 만들고자 하는 꿈수

관광분야 투자활성화대책의 가장 핵심은 복합 리조트 설립 지원이다. 이미, 2014년 2차례 박근혜 대통령 주제로 개최된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안건으로 포함된 부분이 바로 복합 리조트이다.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관광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복합 리조트라는 개념은 IR, 즉 Integrated Resort을 말하는 것으로 카지노와 함께 호텔, 컨벤션, 각종 관광휴양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리조트를 의미한다. 물론 복합리조트 용어는 국내에서 먼저 사용한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는 숙박시설, MICE 시설,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적인 관광시설로 정의하고 있다²⁾. 문화부에서는 복합리조트 프로젝트의 사례로 영종도의 LOCZ 프로젝트 및 파라다이스, 드림아일랜드, 그리고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복합 리조트와 일반 리조트의 차이는 무엇일까? 기존 일반 리조트에도 호텔, 콘도미니엄, 컨벤션시설, 각종 관광휴양시설이 복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차이는 단 하나이다. 바로 카지노 개장 여부이다. 복합리조트 관련 그동안의 정책 보고 문건을 살펴보면 다른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이지 않고, 카지노에 대한 사항만이 눈에 띈다. 즉, 카지노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회피하고자, 복합리조트라는 용어로 카지노를 허용할 수 있는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복합리조트 진행사항은 어떠한가? 지난 2014년 3월, 중국과 미국의 합작사인 LOCZ(리포 앤 시저스 컨소시엄)가 영종도에 카지노를 포함한 리조트 개발에 허가를 받아낸 것이 세간의 이슈였다. 당시 각 언론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이외에도 리포그룹이 금융과 부장산, 도시개발, 쇼핑몰 등 여러분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는 미국 나스닥 상장회사로 75년 역사의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운영회사이며, 연매출 9조원 이상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시저스팰리스 호텔 외 전 세계 50개 이상의 카지노 호텔 및 관광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장밋빛 전망을 제시한 바 있다.

2) 재미있는 것은 국내에서는 카지노를 포함한 리조트를 개발하기 위해 복합 리조트라는 용어를 일본에서 차용하고 있는데, 일본은 2014년 현재까지 카지노가 허가되지 않은 국가이다.



1. 대표적인 복합리조트의 카지노 정책 사안

- 체계적인 복합리조트 설립을 도모하기 위해 공모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 도입
(경자법 개정, 14년 하반기) _ 관계부처합동(2014). 투자활성화대책 -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
- 카지노 허가 외국인투자자 자격요건 중 신용등급 관련 기준 개선(14년 하반기, 경자법 시행령 개정)
_ 관계부처합동(2014). 투자활성화대책 -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
- 수요예측 및 분석을 통한 한국형 복합리조트 모델 개발: 해외사례 조사, 국내 관광·카지노 환경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연구 통해 복합리조트 개발방향, 시설 규모, 적정 개소 수 및 입지 등 선정
_ 문화체육관광부(2014).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
- 복합리조트 투자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 허가 관련 제도 개선 : 공모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 도입 _ 문화체육관광부(2014).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
- 카지노 허가 외국인투자자 자격요건 중 신용등급 관련 기준 개선 : 신용등급이 '투자적격'(BBB등급 이상)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종합적인 자금조달 능력 등 감안
_ 문화체육관광부(2014).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
- 복합리조트 개발 위한 카지노 사전심사 청구(LOCZ) 적합여부 결정
_ 문화체육관광부(2014).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

2014년 9월 현재, 다시 한 번 냉철하게 살펴보자. 2014년 6월 18일까지 리포 앤 시저스는 토지매매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부지매매가인 1억 달러에 대해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 10%, 중도금, 잔금을 분할 상환하였어야 하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³⁾. 이에 계약의 진행 지속성에 의심을 품자, 리포 앤 시저스는 그제야 7월 토지비의 10%인 1,000만 달러를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했다. 계약일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진행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며, 계약을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점 역시 기업에 정부나 지자체가 끌려 다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정부는 왜 이렇게 카지노에 목을 매는가? 그 가장 큰 이유는 카지노가 외화벌이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카지노가 외화벌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사실일까? 일면, 카지노의 개설은 접근성이 보다 용이해지면서 방문객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은 맞다. 2006년 서울 2개소, 부산 1개소 신규 카지노가 진입한 이후, 외래 관광객 대비한 점유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외화수입 대비 점유율은 정체 수준임을 알 수 있다⁴⁾. 다시 말해 카지노가 신규 개설된다고 하여 외화수입에 대해 카지노가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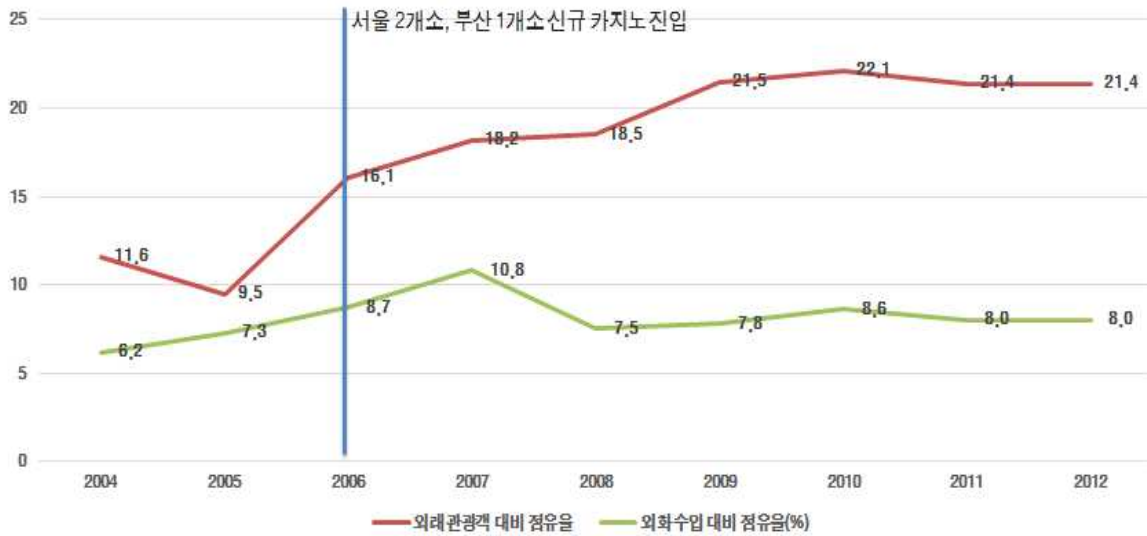
3) 내일신문(2014. 6. 18). 리포&시저스, 영종도 카지노부지 매입기한 넘겨.

4) 조광익(2014). 카지노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기업의 경쟁력 확보방안. 제76차 한국관광학회 강릉국제학술대회 복합리조트 특별세션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 외국인 카지노의 외래관광시장 대비 점유율



각각의 카지노 시설에 대해 입장객 대비 매출액이 늘어나지도 않는다. 서울지역 외국인 카지노의 입장객 대비 매출액은 2012년 49만원이다. 이는 카지노 신규 도입 이전인 2005년 81만원에 비해 상당히 감소된 수치이다. 이 감소폭은 카지노 신규 도입된 2006년 이후 가속화되었는데, 2006년은 48만원, 2007년 53만원, 2008년 58만원, 2009년 52만원, 2010년 48만원, 2011년 51만원으로 카지노 신규 도입 이후에는 큰 폭으로 감소 후 정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입장객의 증가 여부와는 별개로 입장객의 지출성향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이다. 카지노가 더욱 개설된다면 카지노 업장은 그만큼 경영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정부는 현재 카지노 허가를 위해 사전심사제를 통해 카지노 적합여부 판정을 내리고 있다. 리포 앤 시저스도 이러한 사전심사제 방식을 거쳐 카지노 허가를 받아냈다. 문제는 이러한 사전심사제는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외국자본의 ‘떡튀’ 문제이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1단계 투자계획으로 허가를 받은 후, 이후 단계를 투자하지 않고 허가권을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투자금 회수 후 허가권 양도 등으로 인한 안전장치가 없다. 두 번째는 국내자본이 단독으로 사전심사는 청구할 수 없다는 데 대한 역차별 문제이다. 국내자본이 독자적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투자처에 외국자본을 허용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⁵⁾. 마지막으로 외국투자에 대한 개시가 이루어

5) 국민일보(2014. 3. 19). 외국기업에 카지노 개방. 중국 큰손들 유치 포석 - 국내자본 역차별 논란.



어질 경우 추가 제재나 세금 부과가 어려울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른바, 투자자-국가 제소 조항인 ISD의 저축 가능성이다⁶⁾.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사카지노 허가 후, 이에 따른 제재나 허가 취소시 LOCZ는 투자자-국가제소 조항을 통해 손배소를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아닌,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는 데 대해 안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현실도 이제는 다시금 살펴보아야 한다.

첫 번째는 실제 외국인 카지노의 출입자 성향이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세가 눈여겨볼만 하지만, 아직도 많은 출입자 중 상당부분이 검은머리 외국인, 즉 한국인 계열이라는 것이다.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재외동포들이 한국에 방문하였을 때 들리거나, 위조 여권이나 위조 영주권을 만들어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⁷⁾.

두 번째는 도덕적 관점에 대한 것이다. 외화벌이를 위해 외국인 카지노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 외국인이 도박을 하여 중독되거나, 돈을 잃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 마카오, 싱가포르에서 다 그렇게 한다고 하여 우리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 글로벌 시대를 외치고, 한류 육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만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야말로 수구적이고, 편협적인 생각이다.

세 번째는 세계적인 비교에 대한 문제이다. 정부는 외국도 그러하니, 우리도 육성하고자 하고 있지만, 국내 외국인 카지노의 점유율도 심각한 편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에서는 국가의 사행산업 정도를 평가할 때 국내 GDP 대비 사행산업의 순이익율(GGY : Gross Gaming Yield) 지표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0.69%로 통계가 적용되는 세계 161개 국가 중 61위로 중상위권에 해당한다. 카지노 게임만을 한정된 GGY 역시 0.21%로 55위에 해당하는 만큼, 다른 사행산업에 비해 카지노의 비중이 그만큼 큰 것을 알 수 있다⁸⁾.

복합리조트라는 이름하에 허가되는 외국인 카지노는 카지노 방문객을 증가시키게 하고, 외화벌이에 일조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혜택이 국내에 돌아올지, 외국 기업이 모두 가지고 가거나 먹튀를 할지는 제도적 문제점이 많아 보인다. 여기에 그 혜택이 그렇게 크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혜택의 주 구성원인 외국인 관광객의 도박 지출비용이 온당하지도 않다. 그러나 국내 관광을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풀뿌리 정책이 아닌, 크게 한 탕으로 관광육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도박이다.

6) 서울신문(2014. 3. 19). LOCZ 사전심사제 수혜 - 투기자본 무차별 유입 '먹튀' 우려

7) 일요신문(2010. 3. 19). 외국인 카지노에 내국인 복적.

8) Global Betting & Gaming Consultants(2007~2011). Global Gambling Appendices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수립과 산지관광 활성화
: MB정부 토건정책의 확장판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 핵심 중 두 번째는 국토의 금수강산에 해당하는 강과 산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산지관광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은 한강을 파리 세느강, 런던 템즈강 등과 같이 고급 유람선 및 수상운송 수단을 운영하고, 강변지역에 매력있는 건축물, 상업시설 조성으로 필수 관광시설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시하는 세부사항으로는 1) 한강 자연성 회복으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 조성, 2) 한강, 둔치, 한강주변지역 등 구역별 특성에 맞는 시설,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한강지역의 구역별 특성에 맞는 시설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정부에서는 전시장 및 공연장 등에 대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유희시설인 한강 하중도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즉 세빛둥둥섬을 국제회의시설로 적극 활용하고, 노들섬은 문화예술 중심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설 활용계획은 자칫 특혜의 소지를 양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는 하천의 우수소통 능력에 지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 하천점용허가를 할 수 있으나, 세빛둥둥섬과 같은 시설의 지속적 개발은 이러한 하천 우수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하천구역 또는 예정지에는 고정 건축물을 개발하기 어려운데, 이는 국내 하천이 장마철 등 홍수로 인한 수량이 급변하면서 하천 범람 등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문제점과 상관없이 전시장 및 공연장 등에 대해 하천 점용을 허가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한강변에 외래관광객이 오지 않는 것은 투자활성화대책 보고서 문건에서 이미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다. 파리 세느강, 런던 템즈강 등은 고급 유람선·수상 운송수단 운영, 강변지역에 매력있는 건축물·상업시설 조성 등으로 필수 관광코스로 각광받고 있다는 것이다⁹⁾. 한강 유람선에서 본 한강 강변지역의 건축물은 어떠한가? 많은 부분 아파트와 수직으로 뻗어져 있는 빌딩밖에 보이지 않는다.

9) 관계부처합동(2014). 투자활성화대책 -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중심. 28p



3. 파리 세느강과 한강의 유람선에서 본 강변 모습 비교



위의 파리 세느강과 한강의 유람선에서 본 강변 모습을 비교해보길 바란다. 한강 주변 지역을 자연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을 만든다는 정책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이미 아파트와 고층빌딩으로만 들어서 있고, 강변에 넓은 차선의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한강은 이미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상당부분 상실했다. 한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공연장 및 전시장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국토 및 주거 이용에 대한 정책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산지관광 활성화 역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양양에 그토록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케이블카를 육성하겠다는 것도 문제이다. 이미 산양 서식처 등의 문제로 인해 노선을 변경하는 대안을 놓고,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났으나 이를 다시 정부에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제성이 없어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모두 심의 부결이 났어도, 정부에서 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현 박근혜 정부의 불통방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결과이다.

케이블카도 모자라서, 이제는 산지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사도 25도 이하, 표고 50% 이하에만 허용이 되는 산지전용허가 역시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스위스 마테호른의 체르마트 호텔과 같은 시설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자칫 국내 산지의 정상부나 능선에 호텔 및 리조트를 개발할 수 있게 허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생태적 영향에 대한 검토가 규제 완화와 더불어 강화되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명시는 전혀 없다.

또한 산지에 대한 규제 완화는 자칫 전 국토의 부동산 토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국내 지목 상 가장 저렴한 임야에 대해 개발가능지역이 확대되면서, 임야의



토지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전, 담과 같은 다른 지목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 한 차례 부동산 대란이 우려되는 이유이다.

한강 마스터플랜은 4대강과 대운하 사업을 앞섰다. 산지 규제 완화는 그동안 MB정부에서 추진되어 왔던 토건정책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MB정부를 그대로 계승하고,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풀뿌리 관광육성을 고민하자

이번 관광분야의 투자활성화대책은 모든 관광정책 중 투자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확대를 위한 정책만을 제시하였기에, 박근혜 정부의 관광정책이 모두 이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략적인 관광육성 접근방식이 대기업, 외국기업과 개발 위주의 정책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국인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진정으로 관광육성을 위해서라면 대규모 시설투자과 개발이 아닌, 그에 앞서 국내의 각 지역별 문화를 차별화하여 육성할 수 있는 정책, 그에 맞는 소소한 하드웨어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교육과 육성이 필요하다. 오히려 우리 관광지를 더욱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이 지역에 정착하고 자족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지금과 같이 지방을 홀대하는 정책, 농촌·농민·농업을 죽이는 정책, 관광지를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정책은 풀뿌리 관광자원을 모두 말살시킬 수밖에 없다¹⁰⁾. 풀뿌리 자생적인 관광자원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산촌, 농촌, 어촌의 지역민들이 사람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을 리모델링하고, 교육과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일.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방문하면 도심에만 있지 않고 지역에도 머물러서 체류를 증대시키게 하는 일, 한국은 서울과 부산, 도심만 있는 곳이 아니라 두세 번은 방문하여야 진정한 볼 거리를 모두 볼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풀뿌리 관광육성정책이고, 외국인 관광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진정한 투자활성화대책이 될 수 있다. ✎

10) 정관수(2012). 개념여행: 여행기획자 정관수가 말하는 착한 여행, 나쁜 여행. 시대의창.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2014). 투자활성화대책 -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중심.
- 국민일보(2014. 3. 19). 외국기업에 카지노 개방. 중국 큰손들 유치 포석...국내자본 역차별 논란.
- 내일신문(2014. 6. 18). 리포&시저스, 영종도 카지노부지 매입기한 넘겨.
- 서울신문(2014. 3. 19). LOCZ 사전심사제 수혜...투기자본 무차별 유입 '먹튀' 우려
- 일요신문(2010. 3. 19). 외국인 카지노에 내국인 복적.
- 정란수(2012). 개념여행: 여행기획자 정란수가 말하는 착한 여행, 나쁜 여행. 시대의창.
- 조광익(2014). 카지노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기업의 경쟁력 확보방안. 제76차 한국관광학회 강릉국제학술대회 복합리조트 특별세션
- Global Betting & Gaming Consultants(2007~2011),Global Gambling Appendices



2014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4년 9월 2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세계경제	1/15	지뢰밭 속 순항?	정태인
한국경제①	1/16	스스로 지뢰밭을 만들고 있는 박근혜 정부	정태인
한국경제②	1/17	747에서 474로 갈아탄 근혜노믹스	여경훈
복지①	1/20	박근혜 정부식 보건의료, 민영화 폭탄	이은경
돌봄	1/21	진정한 '국가 책임 보육' 이 되려면	최정은
주거	1/24	주택시장 죽이기에 골몰하는 정부, 어찌 하오리까	강세진
노동	1/28	사라진 공약, 반복되는 노동시장 문제들	김수현
복지②	1/29	노인, 대학생, 취약계층 복지 정책 실종	이은경
노동	4/14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에 답 있다.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
노동	4/17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는 무엇인가?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
노동	4/21	서울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 제안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
주거	5/12	노인복지의 주요 이슈, 주거	강세진
경제	5/19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 그리고 한국 경제 ①	정태인
정치	5/22	민주주의의 수호자는 누구인가	이은경
경제	5/26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 그리고 한국 경제 ②	정태인
노동	6/2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이은경
경제	6/5	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 ①	강세진
경제	6/16	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 ②	강세진
복지	6/17	박근혜 2기 개각, 복지축소와 민영화의 신호탄?	이은경
경제	6/19	대기업 지원정책으로 전락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이상호
의료	6/23	박근혜 정부의 독주에 브레이크를	이은경
의료	6/26	이제 그런 핑계 대지마	이은경
복지	7/10	돌봄서비스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제언	최정은
노동	7/14	여성 노동시장에 대한 질적 개선 정책도 추진되어야	김수현
경제	7/29	소득 불평등 지표 개선, 앞으로도 계속 될까?	김수현
사회적경제	8/4	해외협동조합실패사례(1) : 사업이 번창해도 실패한다	이수연
사회적경제	8/5	해외협동조합실패사례(2) :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다	이수연
사회적경제	8/8	해외협동조합실패사례(3) : 무리한 확장과 무관심이 발목을 잡다	이수연
경제	8/22	여전히 심각한 빈곤문제, 더욱 악화된 중고령층 빈곤	김수현
주거	8/25	마을계획 : 주민들의 일상적 사고와 활동의 순환과정	강세진
경제	9/2	MB정부보다 더 강화된 풀뿌리 관광육성정책 파괴	정란수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